

2030년, 충남 농촌의 미래를 말하다

도농복합화 - 농촌공동화 현상의 동시 진행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향후 대도시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농촌의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도농복합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변화는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주거문화 형성, 귀농·귀촌의 증가, 생태·로컬·여유·가치를 중시하는 대안문화 형성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반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벽·오지 지역 등 소외된 마을을 중심으로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거점·직결형 농촌 정주체계로의 변화

교통의 발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읍·면소재지가 갖고 있었던 거점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로 흡수될 것이다.

또한,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하기 힘든 복지 및 여가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심거점마을 또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정주체계에서 다거점·직결형 정주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향후 농촌에는 기존 농업인을 포함하여 귀농·귀촌인, 비농업인, 도시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업생산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농촌의 경관 및 어메니티를 중시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새로운 전원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가 창출되고, 아울러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농어촌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 중시 및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현재의 농촌은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면 미래 농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즉, 농업·농촌이 지닌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가 중시되고,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 했던 경향에서 상대적 격차해소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서도 종합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와 체감형 복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2030년, 농촌의 미래모습을 그린다.

중산간 지역, 산간 벽·오지 지역 등

공동화
현상



도농복합화-농촌공동화
현상의 동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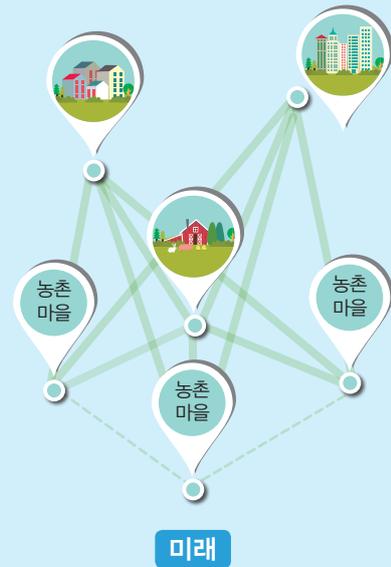
도농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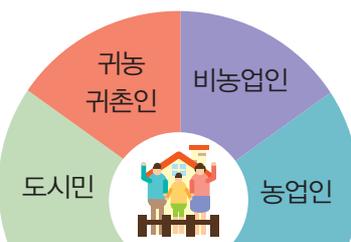
도농복합화란,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주거문화 형성, 귀농·귀촌의 증가 등으로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농촌과 도시의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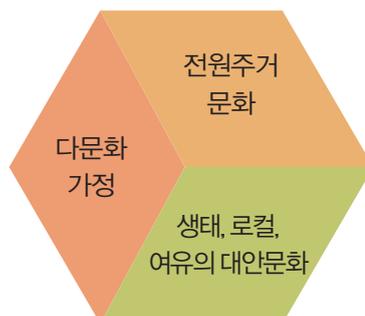
다거점·직결형
농촌 정주체계로의 변화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문화적 다양성 확대



농촌 어메니티 및 행복 증시

